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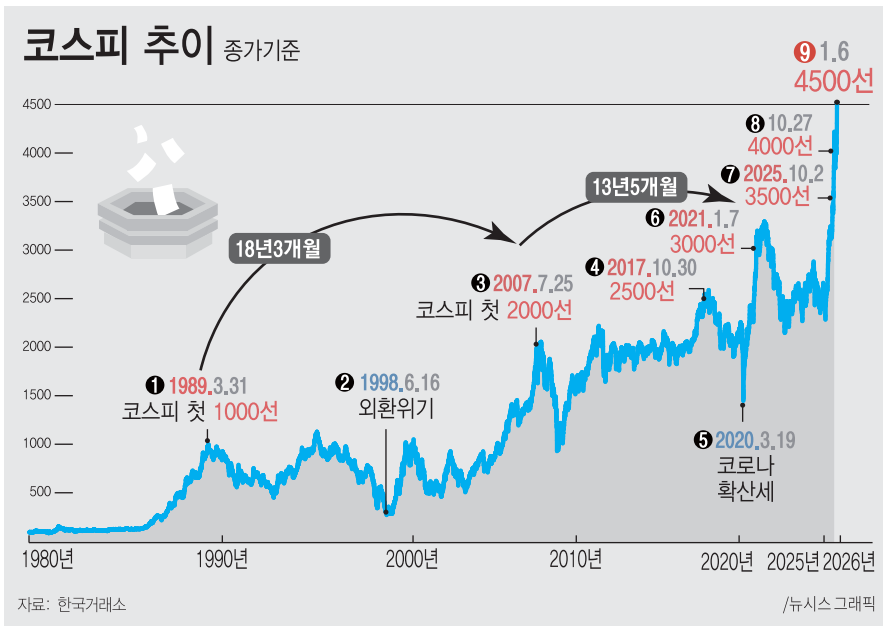
초보부터 큰손까지 투자 러시… 전문가들 “이달 5000 가능”

연이은 상승장에 머니무브 가속
증권가 ‘과거와 다른 시장’ 평가
“당분간 국내비중 확대 전략 유효”

“예금 이자는 커녕 손해볼 판인데 코스피 지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더라고요. ‘내 집’ 없는 사람이 돈 벌 방법은 주식밖에 없어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미래에셋증권 반포역WM 입구에서 만난 주부 박모(37)씨 얘기다. 박씨는 “주식 초보자지만 SK하이닉스나 기아를 사는 게 금리가 2%대인 1년짜리 정기예금보다 낫겠다 싶어 상담차 찾게됐다”고 말했다. 현금 이 없는 개미(개인투자자)들은 ‘빚투’(빚을낸 투자)도 마다하지 않는다. 국내 증권사한프라이빗뱅크(PB)는 “증시가 활황세를 띠자 고객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이른바 국내 증시 ‘유턴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대한 문의도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7일 코스피가 장 중 4600마저 가볍게 넘자 ‘앵그리 머니’가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속 집도 없는 데 주식도 오르고, 쥐꼬리만 한 예금 이자에 지친 투자자들이다. 증권사



들은 코스피 6000도 결코 ‘꿈’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시장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인공지능(AI) 투자 붐, 배당소득세 완화 등 증시 부양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가 한꺼번에 겹쳤다.

◆증시 주변자금 116조

이날 코스피는 0.57% 상승한 4551.06에 마감했다. 4600선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올해 들어 4거래일간 매일 사상 최고 지수 증수를 높여가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 5000까지는 불과 448.94포인트가

인트가 남았다. 시중 자금은 무섭게 증시를 향한다. 주식을 사기 위해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6일 88조6339원을 돌파했다. 한 달 전 78조1371억원 보다 10조5000억원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이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빌린 돈(신용융자)은 6000억원가량 늘어나 전체 잔고는 27조7963억원이다. 사실상 개인이 즉시 증시에 투입할 수 있는 실탄(투자예탁금+신용융자)만

116조원에 다다른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약 826조원)의 15% 해당하는 규모다. 뿐만 아니다. 올해 들어서보름여 만에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이 2만588개 개설됐다. 마이너스 통장 잔액만 1조 5602억원 늘어났다. 이들 자금도 유사시에 증시 등으로 유입될 수 있는 돈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유동성도 증시를 향한다. 코스피 4000선을 다시 넘어선 지난달 3일 이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6000원어치 주식을 샀다.

◆“6000도 가능”, 큰 손들은 증시로

지금 투자해도 될까. 시장 전문가들은 과거와 다른 시장이라고 얘기한다. AI 붐의 영향으로 뜬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안타증권은 사상 초유의 실적 장세가 반도체를 통해 현실화될 경우, 지수 상단은 6000선도 가능하다고 봤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크리스마스 이후 코스피가 2주가 안 돼 거의 500포인트 올랐다”면서 “이 기세면 1월에도 코스피 5000도 바라볼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도 “선행 주가수익비율(P/E) 3년 평균의 +1 표준편차인 11.6배를 적용할 경우 5000

포인트 또한 가시권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이익 모멘텀 강화 지속, 외국인 순매수 기조 등 최근 랠리의 동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당분간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 급등의 여파로 기술적 과열 신호가 보이는 만큼 8일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 후 재료소멸에 따른 ‘셀온’(sell-on·고점매도) 등을 발미 삼아 주가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강남 큰손들도 새해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과 함께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는 등 자산 증식의 기회로 삼고 있다. 삼성증권이 자산 30억원 이상 SNI 고객 401명을 대상으로 ‘2026년 주식 시장 전망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중 32.1%는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증권은 올해 투자 핵심 키워드로 ‘K.O.R.E.A.’라는 조어를 제시했다. 한국 주식(K-stock) 선호, 성과 사회(Outperform), 주식으로의 리밸런싱(Rebalancing), 상장지수펀드(ETF) 활용, AI 주도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삼성전자, D램·HBM 등 사업전망 호조… “24만원까지 갈 수 있어”

(맥쿼리)

AI 인프라 수요 등 수혜… 영업익 급증
증권가 목표가 상향, 밸류 부담도 제한적

“JY’(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끝까지 들고 있길 잘했다. 21세기 가장 현명한 투자자될 것 같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포털 사이트의 주식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국민주’ 삼성전자에 역대 최고 주가를 연일 갈아치우자 터져 나온 개미들의 환호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18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1.51%(2100원) 오른 14만1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올해 들어 14.45% 뛰었다. 이날 장중 14만4400원을 찍기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했다. 반도체주 훈풍에 삼성전자가 자체 그래픽처리장치(GPU)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매수세를 더 끌어올렸다.

이 같은 상승은 시장 참여자들이 삼성전자의 사업 전망을 밝게 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분야

에서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뛰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D램(DRAM) 가격이 최대 6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인공지능(AI)이 학습에서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필요한 메모리 용량이 3배로 늘어나면서 구조적인 수요가 커졌고, 메모리가 활용되는 영역이 피지컬 AI 등으로 넓어진데 근거한다. AI칩의 핵심 구성요소인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본격적인 판매도 예상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향후 2년 동안 D램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를 밀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적 전망의 눈높이도 높아졌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7조498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7% 넘게 상향 조정됐다. 일부 증권사는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원을 웃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통상 4분기는 비용 반영과 일회성 요인으로 실적이 부진했지만, 이번에는 메모리 가격과 환율 효과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선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6일(현지시간)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는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17만5000원에서 24만원으로 올렸다. KB증권은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8만원으로 상향하며 “글로벌 D램 업체 가운데 여전히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엔비디아(Rubin), 구글(TPU) 등 ‘빅테크’ 고객사에서 2026년 1분기 HBM4 최종 품질 승인이 예상되며, 2분기부터 H

BM 출하량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1월 현재 D램·낸드 수요는 공급을 30% 이상 상회하고 있다”며 “HBM4는 2026년 1분기 최종 품질 승인 이후 2분기부터 출하가 급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본부장은 올해 삼성전자의 HBM 출하량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112억 Gb로 늘고, HBM 점유율도 2025년 16%에서 2026년 35%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증권 역시 메모리 가격 상승과 HBM 효과를 근거로 목표주가를 다시 끌어올렸다.

다만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AI 거품론’이 만약 현실화하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악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반도체 대형주 풀림현상 심화… 경기·환율에 따른 변동성 확대

반도체 업황이 시장 전반 좌우

7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600선을 돌파하며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를 새로 썼다. 증시 상승세는 반갑지만 불안 요인도 적지 않다. 시장의 온기가 반도체와 일부 대형주에만 쏠려 있다는 게 문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가 코스피 거래대금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할 정도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합산 비중은 36.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각각 22.20%, 14.37%

씩이다.

코스피 반도체 대장주인 두 종목의 비중은 지난 2020년 연초 27.27%에서 지난해 초 22.58%까지 내려갔다가 같은 해 연말 34.04%까지 높아졌고, 올해 36.57%까지 빠르게 급증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는 2020년 4.72%에서 올해 14%대까지 올라섰다.

경기 부침이 있는 반도체의 향방에 따라 자칫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구조다. 수출의 키를 쥐고 있는 인공지능(AI)산업의 거품 우려도 지켜봐야 하고, 글로벌 통화 중에서도 원화가 유독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외국인 수입이

계속될지도 변수다.

간접투자 시장도 풀림이 나타난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수익률은 ‘ACE AI반도체포커스’(20.7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TIGER 반도체TOP10’(17.60%), ‘RISE 반도체TOP10’(16.69%) 등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수익률 상위 5개 상품 중 3개를 반도체가 차지했다.

문제는 자본시장 내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비해 낙수효과를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엮동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 반도체 기

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나머지 코스피200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넘어섰으며, 이익 증가율 격차는 2026년 3분기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엮 연구원은 “대형 반도체 2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실적은 과거 4분기와 유사한 계절적 부진을 겪으며, 투자자가 체감하는 어닝 시즌의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지난해 4분기 이후 코스피200 실적 추정치는 상향 조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2개 기업을 제외하면 실적은 하향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비반도체 기업은 실적을 확인하되,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는 제언이다.

한국 경제의 반도체 착시 현상은 수출에서도 두드러진다. 최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전체 수출은 707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다. 특히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가 2024년 대비 22.2% 성장한 영향이 크다. 하지만 반도체가 전체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4%로, 직전 최고치였던 2018년 20.9%를 경신했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반도체를 선두로 한국 수출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비반도체 품목의 수출 동력이 미약하게 유지되는 점은 수출 호조의 지속성을 저해한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